

코로나19 장기화에 건강챙김 열풍... '건기식' 시장 올해 6조

건강기능식품

코로나로 '셀프 메디케이션' 급부상해

홍삼 찾는 사람 줄고 프로바이오틱스 늘어

"건기식은 의약품 아닌만큼 맹신 금물"

주부 이모(41)씨는 매일 남편과 함께 종합비타민제와 오메가3, 프로바이오틱스를 챙겨먹는다. 바깥에 잘 나가지 못해 햇볕을 못 쬐는 아이들을 위해서는 비타민D를 꼭 챙겨준다. 이씨가 이렇게 매달 건강기능식품 구입에만 쓰는 돈은 20만원 정도다. 이씨는 "예전에는 건강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 건강기능식품을 전혀 챙겨 먹지 않았다"며 "최근 코로나19로 면역력이 중요하다고 해 면역력을 높일 수 있는 것들을 챙기고 있다"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스스로 건강관리에 집중 투자하고 소비를 아끼지 않는 '셀프 메디케이션' 트렌드가 급부상했다. 이에 따라 건강기능식품 수요도 커지고 있다. 또 감염 우려에 병원을 가기 꺼려하게 되면서 머리 감기 등의 질병을 예방하고 자기 몸을 스스로 챙기는 분위기도 확산됐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평소 건기식을 찾지 않았던 사람들도 건기식을 챙겨 먹기 시작했다. 실제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2020년 가공식품 소비자 태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건기식을 복용하고 있는 가구는 79.9%로 집계 됐다. 이는 전년(69.8%)도 조사때보다 10.1%포인트나 높은 수치다. 최근 1년간 건기식 구입 개수도

3.67개로 전년의 3.2개보다 늘었다. 연간 건기식 구입에 지출한 액수도 25만 3136원으로 전년 21만6760원 보다 3만6000원 가량 많아졌다. 건기식을 복용하는 이유로 '건강 증진'과 '질병예방'을 꼽은 응답자도 각각 64.8%에서 66.2%로, 43.5%에서 49.5%로 늘었다. 그만큼 건강을 염려하는 사람들이 늘었다는 얘기다. 건기식은 여전히 홍삼 제품이 가장 인기가 많지만 최근에는 '프로바이오틱스' 관련 제품이 급성장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2019년 건강기능식품 생산액 1조9464억원 가운데 홍삼제품 생산액이 5881억원으로 전체의 29.4%를 차지했다. 이는 전년(39.1%)에 비해 점유율이 크게 낮아진 수치다. 반면 장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프로바이오틱스가 2757억원으로 전년(1898억원)보다 45.2%나 늘었다.



전문가들은 건기식이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의약품이 아닌 만큼 지나친 맹신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코로나19의 전세계적 유행으로 비타민과 홍삼 등 면역력에 도움이 되는 건강기능식품을 찾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현재 국내에서 인정된 건기식 중 코로나19의 예방과 치료에 기능성을 가지고 있는 제품은 없다"고 지적했다. 김민정기자



명절증후군, 종합 비타민으로 극복 롯데백화점은 설 명절 기간 겪은 스트레스로 인한 명절증후군 극복을 위해 종합비타민 등 다양한 건강기능식품을 21일까지 할인 판매하는 행사를 진행한다. (사진=롯데쇼핑 제공)

보조금 기준 맞춰 가격 낮춘 테슬라... 모델Y 5999만원

미국 도로교통안전국 역대 테스트 SUV 중 가장 낮은 전복 확률 나타나

테슬라가 국내시장에 출시하는 중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모델Y' 스탠다드 레인지의 가격을 5999만원으로 책정했다. 정부가 올해부터 판매가 6000만원 이하 전기차에만 보조금 100%를 지급키로 한 데 따라 보조금 혜택을 최대한으로 받기 위해 가격을 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테슬라코리아는 지난 12일 중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량 모델Y를 국내에 공식 출시하고, 주문 접수를 시작했다. 트림별로 ▲스탠다드 레인지(5999만원) ▲롱레인지(6999만원) ▲퍼포먼스(7999만원)로 판매된다. 테슬라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주문할 수 있다. 테슬라코리아는 이와 함께 '모델Y' 연식 변경 모델의 가격을 낮췄다. 600만원 이하였던 스탠다드 레인지 플러스는 5479만원부터로 지난해와 가격이 같지만, 롱레인지의 경우 6479만원에서 5999만원으로 가격을 낮춰 보조금을 100%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퍼포먼스 트림의 경우 7479만원으로 지난해와 같다. 정부는 올해부터 판매가 6000만원 이하 전기차에 보조금 100%, 6000만원 초과 9000만원 미만 전기차에 보조금 50%를 지급한다. 9000만원 이상 전기차는 보조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 보조금 지급 여부를 가르는 판매가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당가격



에 개별소비세와 교육세를 합한 금액으로 산정된다. 테슬라는 지난해 트림에 따라 최대 800만원의 구매 보조금을 받았지만 바뀐 기준으로는 보조금이 대폭 감소할 것으로 관측됐다. 하지만 모델3 롱레인지 가격을 5999만원으로 낮추고, 모델Y 스탠다드 역시 5999만원으로 가격책정을 함에 따라 보조금 혜택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시장은 테슬라가 중국에서 보조금 혜택을 고려해 모델3 가격을 기존보다 약 10% 낮춘 약 5215만원(롱레인지 기준)에, '모델Y'를 기존에 예고했던 가격보다 30% 인하한 약 5700만원(33만9000위안)에 판매하고 있는 것을 근거로, 국내에서도 가격 조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테슬라 모델 Y의 주행 가능 거리는 최대 511km(롱레인지 기준)이며, 정

미국서 상장하는 쿠팡... 몸값 55조원 넘긴다

외신 "기업 가치 500억 달러 이상 예상"

코로나 수혜... 지난해 매출 전년보다 2배

쿠팡이 미국 뉴욕 증시 상장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창업자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이 2011년 "미국 나스닥에 상장해 세계로 도약하겠다"고 말한 지 딱 10년 만이다. 상장 작업 후 쿠팡 가치는 55조원이 될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국내 유통업계 관계자는 "코로나 사태로 온라인 쇼핑 시장이 더 빠르게 성장하게 된 게 이번 상장 작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예상 기업 가치 55조원 넘겨

쿠팡은 12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클래스A 보통주 상장을 위해 S-1 양식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했다. 상장될 보통주 수량과 공모 가격 범위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쿠팡은 보통주를 뉴욕증권거래소(NYSE)에 'CNPG' 종목 코드(Trading Symbol)로 상장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쿠팡의 기업공개(IPO) 규모는 중국 최대 e커머스 업체인 알리바바 이후 최대 규모가 될 것"이라고 했다. 알리바바의 2014년 IPO 당시 기업 가치는 1680억 달러(약 186조원)였다. 쿠팡 상장은 이르면 다음 달 안에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된다. WSJ는 쿠팡이 약 500억 달러(약 55조4000억원) 가치로 평가될 것으로 예상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즈 역시 업계 관계자를 인용해 비슷한 규모 기업 가치를 인정받게 될 거라고 했다.

◇상장 시기 앞당긴 코로나

쿠팡이 미 SEC에 제출한 상장 신

정 서류엔 지난해 총 매출액이 119억 7000만 달러(약 13조3000억원)였다. 2019년 7조1000억원에서 2배 가까이 늘었다. 반면 순손실은 4억7490만 달러(약 5257억원)로 전년(6억9880만 달러) 대비 2억 달러 이상을 줄였다. 업계는 쿠팡의 이런 급성장 배경에는 코로나19 사태가 있다고 해석한다.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대면에서 비대면으로 쇼핑 패러다임이 급격히 전환하면서 국내 유통 기업 중 e커머스 부문에서 가장 공격적인 경영을 해 온 쿠팡이 큰 수혜를 입었다는 것이다. 국내 유통업계 관계자는 "쿠팡이 지금이 상장을 위한 최적이라고 판단한 것 같다"고 했다. 미 경제전문 포브스는 쿠팡 상장 관련 기사에서 "아마존이 미국에서 이견 없는 승자라면 한국에서는 소프트뱅크 후원을 받은 이 회사가 승자"라고 표현했다.

◇상장 후 실탄 확보, 다시 투자

쿠팡은 김범석 의장의 '상장 발원' 이후 꾸준히 미국 상장을 준비해왔다. 2019년 10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의장 후보로 거론됐던 케빈 워시 전 연방준비제도 이사를 지주사인 쿠팡 LLC 이사회 멤버로 영입한 것을 시작으로 최고재무책임자(CFO), 최고회계책임자(CAO) 등 자금 관련 부문 임원에 미국 금융계 유력 인사를 영입해왔다. 그때마다 쿠팡 미국 증권 시장 상황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얘기가 나왔다. 쿠팡이 상장에 공을 들인 이유는 결국 투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쿠팡은 그간 손마사요시(孫正義·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이 이끄



는 비전펀드에서 약 34억 달러(약 3조 7600억원)를 투자받아 국내 30개 도시에 약 150개 물류센터를 세우고, 국내 유통 기업으로 유일하게 전국 단위 익일 배송 시스템을 구축했다. 그러나 누적 적자가 3조원을 넘었고 투자금도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 게다가 국내 온라인 쇼핑 시장 경쟁이 날이 갈수록 치열해지면서 풀필먼트 서비스(Fulfillment Service)를 지금보다 더 확대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는 것이다.

◇2025년까지 5만명 채용

쿠팡 상장 신청 서류에 따르면, 김 의장은 그가 보유한 클래스B 주식에 대해 1주당 29배의 '차등의결권'을 갖게 된다. 쿠팡 주식은 클래스A 보통주와 클래스B 보통주로 구성된다. 클래스B는 클래스A에 비해 주당 29배의 결권이 있는 주식으로 모두 김 의장이 갖고 있다. 이번엔 상장하지는 않지만, 의결권이 있다. 클래스A로 전환 가능하다. 김 의장이 가진 한 주가 다른 사람의 한 주보다 29배 강한 영향력을 갖게 된다는 의미다. 이와 함께 쿠팡은 이 서류에서 2025년까지 5만 명을 추가 고용하겠다고도 했다. 쿠팡 현재 직원 수는 약 5만명으로 추정된다. 2025년엔 임직원 수가 두 배가 되는 셈이다. 삼성전자의 지난해 3월 임직원 수가 10만 6200명이었다. 배송 직원 포함 현장 직원에게 쿠팡 주식을 나눠주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김 의장은 "1000억원 규모 채원으로 프런티어에 있는 직원을 주식 보유자로 만들어주겠다"고 했다. 최이슬기자

'괜찮은 중소기업 3만개 여기 있오'... 中 취업플랫폼 오픈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15일부터 '참 괜찮은 중소기업' 플랫폼 정식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참 괜찮은 중소기업'은 청년 등 구직자들이 일하고 싶은 우수 중소기업을 쉽고 편리하게 찾고, 다양한 일자리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개

등 6개 기준으로 재차 엄선된 참 괜찮은 중소기업 3만개를 ▲지도에서 찾기 ▲조건으로 찾기 ▲선호기업 찾기를 통해 회원가입 없이 찾을 수 있다. 참 괜찮은 중소기업의 6개 기준은 ▲신용등급 BB- 이상 ▲영업이익 창출(최근 2년) ▲퇴사율(최근 3개월 평균 20% 미만) ▲채널·채널·재해·성범죄(최근 3년)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상 제외업종 ▲대·중견기업·공공기관, 10인 이상(건설업 30인 이상, 스타트업 5인

이상)이다. 또 중소기업회와 중소기업은 '중소기업 현직 멘토단'을 운영해 구직자들의 다양한 질문에 중소기업 현직자들이 직접 답변하는 서비스를 신설했다. 특히 중소기업 현직자들이 작성하는 '우리회사 자랑하기' 서비스는 그동안 정형화된 데이터로는 확인할 수 없었던 기업문화나 업무 분위기 등의 정보도 제공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